

市·郡 개발사업 투융자심사 줄줄이 ‘제동’

올 신규사업 ‘적정’ 절반도 안돼...갈수록 ‘바늘구멍’

단편적 개발사업 위주 아닌 다양한 전략 마련 시급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장기 개발사업들이 정부는 물론 전남도의 투·융자심사에서도 잇따라 재검토 판정을 받거나 반려되고 있다.

테마파크 및 관광지 개발, 유류지 시설 설치 등 단편적인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자원조달 방안이 미흡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부처 등의 투·융자 심사 기준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시·군의 대처는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반면 전면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재정력 정도를 감안해 국비를 증액해주는 투·융자 심사를 통해 쇠락한 지역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투자사업(전남도 200억원 이상, 시·군 100억원 이상)과 관련 안전행정부의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전체 19건 가운데 적정은 4건에 불과한 반면 조건부 8건, 재검토가 7건이었다.

사업비가 그 이하인 경우 전남도가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회부된 54건 가운데 적정 21건, 조건부 20건, 재검토 11건, 반려 및 부적정 2건 등으로, ‘적정’ 의견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적정’ 의견은 우수시설, 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한 경우 민자유치 방안과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 방안 등

의 지적 사항을 이행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검토는 추후 재정정을 통해 조건부 또는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전남지역 시·군이 과거와 유사한 관광지 및 테마파크 개발, 농공·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역발전전략으로 내놓자 안전행정부나 전남도는 구체적인 민자 유치 방안, 국비 지원계획,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면서 조건부나 재검토 결정이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가장 규모가 큰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2013~2020)’의 경우 지난 7월 첫 심사 당시 도로 3.3km, 공원 8만7000㎡ 등을 조성하는데 당초 1090억원(국비 545억원, 시비 5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660억원(국비 330억원, 시비 330억원)으로 대폭 줄여 최근 재상정했다. 두 달만에 사업 예산이 430억원이나 감축된 셈이다.

고흥군이 이달 들어 제출한 ‘친환경 해

조류 종합가공단지 조성사업(2015~2017)’의 경우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변경하고 예산 비중도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고령군 간 사전 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월 조건부 결정이 내려진 함평군의 ‘함평돌머리지구 연안 유류지 개발사업(2014~2017)’의 경우 사업 추진으로 들어설 해변탐방로, 목장체험장, 오토캠핑장 등의 추후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시·군의 재정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보니 예산 문제에 봉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군은 좀 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시 재정능력을 감안해 국비를 증액해주는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스마트가전·전남 바이오식품

5년간 21개 산업 집중 육성

지역 생산액 53조9000억 ↑

광주시는 앞으로 5년간 스마트가전 등 11개 산업을, 전남도는 조선해양플랜트 등 10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시·도는 오는 2018년이면 이들 산업의 지역 내 생산액이 53조9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남 창원시에서 이관선 자관 주재로 14개 시·도 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등 전국 14개 시·도의 핵심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주력·협력·연고(전통)산업으로 스마트 가전 등 11개, 전남은 금속소재·가공 등 10개 산업을 오는 2018년까지 집중 육성하게 된다.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전남 주력·협력·연고 산업

광주(11)	스마트가전, 생체 의료 소재 부품, 디자인
주력	초정밀 생산 가공 시스템, 복합 금형
협력	친환경 자동차, 광·전자 융합
연고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 부품
전남(10)	헬니스 CoBe, 휴먼케어산업, 인쇄 출판
주력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에너지 설비
협력	석유 화학 기반 고분자 소재
연고	바이오 활성 소재, 조선 해양 플랜트
주력	나노 융합 소재
협력	고품질 타월, 산수유, 다시마

광주시는 스마트 가전과 복합금형, 생체의료 소재 부품, 초정밀 생산가공 시스템, 디자인 등 5개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광·전자 융합,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 3개 분야는 타지역과의 협력산업으로, 헬니스 CoBe(천연 화장품·미용산업), 휴먼케어 산업, 인쇄출판 등 3개 분야는 지역연고산업으로

좌와 별 기준 시민들에 물어보니 ▶6면

기아차 올 뉴 쏘렌토 시승기 ▶10면

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11개 산업의 지역 내 생산액은 2012년 기준 22조1000억원으로, 2531개 기업에서 4만6480명이 근무중이다. 시는 집중 육성을 통해 5년 뒤면 생산액은 35조3000억원, 기업체 3041개, 근무자 5만7970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선정된 7대 대표산업 중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세라믹) 3개 산업은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또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 고분자 소재, 에너지설비(태양광·풍력·조류) 4개 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선정했다. 연고산업은 다시마·타월·산수유 등이 선정됐다.

현재 이들 10개 산업은 생산액이 72조5000억원, 종사자 6만7224명, 사업체(근로자 10인 이상) 수 833개사에 머물고 있으나 5년 뒤에는 생산액 113조2000억원, 종사자 8만5680명, 사업체 1078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된 대불 등 4개 산업단지의 개발 비전도 확정했다. 대불산단은 친환경전박, 레저선박 등 기술집약형 첨단 조선해양산업단지로 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테니스 28년·카누 24년만에

드디어 금맥 터졌다



테니스와 조정에서 20여 년을 기다린 금맥이 터졌다.

임용규(23·당진시청)·정현(18·삼일공고)이 29일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테니스 남자복식 결승에서 한국에 28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줬다.

〈관련기사 18면·화보 20면〉
임용규와 정현은 사남 상-사게스 미네니(이상 인도)를 2-0(7-5 7-6<2>)로 제압하면서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처음으로 남자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카누에서도 24년 만에 금메달이 나왔다. 조광희(21·울산시청)는 하남 미사리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카약 1인승 200m 결승에서 35초46에 가장 먼저 물살을 가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숨을 고른 지역 선수들의 메달행진은 30일 재개된다. 침묵을 이어오고 있는 불링의 최복음과 박종우(이상 광양시청)가 남자 5인조에서 대회 첫 메달을 겨냥하고, 이영승(한국체대)은 2인조 동메달에 이어 5인조에서 두 번째 메달을 노린다. 광주시청 육상팀 김덕현(말리뛰기)과 박태경(110m 허들)의 도약도 펼쳐진다. 광주 남구청의 구학본은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98kg에 출전한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 29일 오후 시민들이 광주 충장축제(10월8~12일)를 앞두고 동구 금남로 곳곳에 형형색색 조성된 화단 길을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희망달빛
영호남 문화교류 대학원 프로젝트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서울시청 앞 광장
▶2014년 10월 13일(월) ~ 15일(수) 3일간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로!

영·호남 농·수·특산물 문화를 입다!
영·호남 문화를 소개하고
농·수·특산물을 알리는 교류의 장!

주최 | (사)아시아문화 · 영·호남 상생포럼
주관 | 광주일보사 · 영·호남 · 每日新聞社
협찬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NH농협 · 수협 · SK 텔레콤

영·호남 농·수·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행정홍보 및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